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와 해학의 문제

송 철 호*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해학의 의미 |
| II. 활자와 시정의 유흥세대 | V. 맺음말 |
| III. 〈이춘풍전〉의 풍자양상 | |

국문초록

본고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해학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세해체기인 19세기의 전환기적 성격과 당대 시정의 유흥문화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풍자양상을 먼저 검토했으며 이후 해학성을 검토하고 해학이 갖는 작품 내적 의미를 규명했다.

〈이춘풍전〉은 전환기적 시대의 잘못된 유흥문화에 빠져 가산을 탕진 하고 가정을 버린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그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인간성마저 파괴된 인물이다. 이 작품은 남편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아내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판소리적 성격이 강한 전반부는 잘못된 유흥문화에 빠져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남

* 부산대학교 강사

편의 모습이, 문장체 성격이 강한 후반부는 그런 남편을 바로잡으려는 아내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풍자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춘풍전>은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풍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학은 결말 부분에서 짧게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분량의 차이가 실제로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학이다. 해학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에게 보여주는 연민의 마음, 춘풍이 아내가 원하던 인간형으로 변모했다는 사실, 화목한 가정을 되찾고 더 큰 긍정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사실, 춘풍의 아내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풍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부정과 비판, 그리고 공격이 목적인데 <이춘풍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의 풍자는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본래 풍자가 ‘개선의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본질은 부정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있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그럼으로써 작품은 해학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풍자는 해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학은 풍자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춘풍전>, 판소리, 시정세대, 전환기, 풍자, 해학

I. 머리말

<이춘풍전>은 이 작품 갖는 사회적 의미, 인물의 독특함, 신랄한 풍

자성과 해학성에 비해 연구 성과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본, 인물, 작품성, 특히 풍자성에 대한 연구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춘풍전>의 이본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여운필에 의해 이루어졌다.¹⁾ 그는 성산본·가람본·국립도서관본·나손본 A·B 등의 5종을 대상으로 필사년도와 성립시기, 언어적 특징과 판소리와와의 상관성, 소설에 반영된 제반 사회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후, 김중철에 의해 『觀優戯』의 <왈짜타령>이 <게우사>라는 작품으로 정착됐음이 밝혀져²⁾ <이춘풍전>의 서지적 연구에 큰 진전이 있었다. 권순궁은 여운필의 논의에 더하여 김중철본과 임형택본을 더하여 모두 7종의 이본을 검토하였는데, 그는 <이춘풍전>의 성립시기를 19세기 말쯤으론 본 여운필과는 달리 작품 내의 手記와 세부 묘사에 주목하여 작품의 성립 연대를 19세기 중엽으로 보았다.³⁾ 권순궁 이후 <이춘풍전>의 이본 연구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이는 조상우이다. 그는 <이춘풍전>의 이본으로 <十八子花日風>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면서⁴⁾ <이춘풍전>의 이본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의하면 <이춘풍전>의 이본은 성산본·나손본(1,2,3,4,5,6본)·가람본·국립도서관본·박순호본(1,2본)·연세대본·조상우본(<십팔자화일풍>)·<한성신보> 연재본 등 14본이 있으며, 단국대 율곡도서관 내에 서지는 있으나 아직 확인 되지는 않은 <영영전>과 합철된 본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⁵⁾

<이춘풍전>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춘풍의 처 김씨에 집중

1) 여운필, 「이춘풍전과 판소리의 관련 연구」, 『부산여대논문집』24집, 1987; 여운필, 「이춘풍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2) 김중철, 「게우사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보』 65집, 일지사, 1991.

3) 권순궁, 「이춘풍전의 풍자성과 근대적 지향」, 『반교어문연구』 5집, 반교어문학회, 1994; 권순궁, 「이춘풍전의 연구와 전망」, 『고소설연구사』, 우쾌제막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2.

4) 조상우, 「<十八子花日風> 解題」, 『동양고전연구』 제19집, 동양고전학회, 2003.

5) 조상우, 『고전산문의 발견과 활용』, 보고사, 2007.

되어 있다.⁶⁾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으나 권순궁은 낡은 시대의 권위를 과감히 부정하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서경희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춘풍전>의 인물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춘풍전>의 풍자성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김종철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이춘풍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허황된 풍습을 춘풍의 아내 김씨와 같은 변동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비판하는데 이 작품의 문화·사회학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화폐경제 시대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풍자의 핵심이라고 하였다.⁷⁾ 반면에 권순궁은 이춘풍에 대한 풍자가 아내인 김씨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왜곡된 가부장권이 풍자의 핵심이라고 했다.⁸⁾

<이춘풍전>은 판소리계소설 중에서도 판소리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따라서 판소리서사체의 주제가 지닌 이원적 성격을 참고하면서 작품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이춘풍전>의 결말에 보이는 해학의 성격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현재 별로 보이지 않는다. 보고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해학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 중세해체기인 19세

6)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덕순, 「이춘풍전 연구」, 『국어국문학』 5집, 국어국문학회, 1953 ; 최숙인, 「이춘풍전 연구」, 『이화어문논집』 5집, 이화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 안창수, 「이춘풍전 연구」, 『영남어문학』 10집, 영남어문학회, 1983 ; 정병현, 「이춘풍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권순궁, 「이춘풍전의 풍자성과 근대적 지향」, 『반교어문연구』 5집, 반교어문학회, 1994 ; 서경희, 「이춘풍전의 남성과 여성」, 『이화어문논집』 17집, 이화어문학회, 1999 ; 조현우, 「19세기 남성 주체의 “곤경”과 “환멸” -<이춘풍전>의 공간가 인물 구도-」,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등이 있다.

7) 김종철, 「중세해체기의 두 웃음」,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8) 권순궁, 앞의 논문.

기의 전환기적 성격과 당대 시정의 유흥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풍자성을 먼저 검토해볼 것이다. 풍자성과 해학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풍자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해학성 규명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왈자와 시정의 유흥세대

이춘풍은 왈자이며 왈자는 중간계층이다. 중간계층은 조선후기 도시의 유흥적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물론 유흥의 향유층을 중간계층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유흥적 분위기의 조성·확산에 주도권을 행사했던 이들은 중간계층이다.⁹⁾ 조선후기 서울의 시정에서 중간계층은 양적으로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관직상의 정원으로 기술직 중인이 1,700명 정도,¹⁰⁾ 법전에 등록된 경아전이 1,200명 정도였으며, 군영장교의 수가 4,000 정도였으니¹¹⁾ 여기에 경아전과 같은 부류인 점인, 시전상인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들 중간계층들이 왈자의 모태이다. 그렇다면 왈자란 무엇이며, 이들은 조선후기 사회 구조상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계우사」는 당하 천총 이하 모든 부류들을 ‘왈자’란 명사로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왈자에 대한 「계우사」의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이 있다. 당하천총, 내금위장, 선전관 등은 모두 양반 무반직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왈자는 각사 서리, 역관, 좌우포청 이행군관, 대전별감, 나장, 정원사령, 무예별감, 각전 시정 등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이 왈자

9)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1992, 201쪽.

10) 철종 2년 中人通淸運動에 참여한 기술직 중인의 수는 1,670명이었다. 정옥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일조각, 1988, 219쪽.

11) 강명관, 앞의 논문, 196쪽.

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궁중과 중앙관청에 소속된 인물들이 주류이며, 아울러 妓夫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부호들이 연계되어 있다. 즉 권력, 부, 유흥의 복합인 것이다.¹²⁾

왕자는 폭력성을 띤 개인의 성향과 함께 모종의 동질적인 부류로서의 사회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계우사」의 주인공 무숙이가 ‘대방왕자’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준다. 대방이란 말은 조선후기의 광대 조직 따위의 민간 조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무숙이가 왕자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19세기까지 왕자가 하나의 조직체로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왕자의 초기 모습은 박지원의 「髮僧菴記」에 나온다. 주인공 김홍연은 양반사대부와는 기질이 다른 독특한 인간유형을 보여주는데, 바로 왕자의 유형에 속한다. 왕자라는 단어는 이규상의 <張大將傳>에 처음 나온다. ‘劍契들이 스스로를 칭하여 왕자라고 한다.’고 했다.¹³⁾ 그런데 검계의 인물들이 스스로를 왕자라 부른 것에 비추어보면 왕자는 본래 검사협객들로 유흥가를 주름잡았던 부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후대로 오면서 유흥적 성격은 점점 퇴색되고 주색잡기에 빠진 탕아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⁴⁾ <한양가> · <계우사> 등을 근거로 이들이 소속된 사회계층을 살펴보면, 역관 · 각사의 書吏, 대전별감, 무예별감, 군영 교관, 포교, 승정원 사령, 羅將, 시정상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춘풍전」의 이춘풍은 「계우사」의 무숙이, 그리고 「丐者李錫周傳」¹⁵⁾의 주인공 이석주와 함께 시정상인에 속하는 商人왕자이다.

12) 김종철, 「무숙이타령과 19세기의 서울 시정」,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178쪽.

13) “혹은 스스로 칭하기를 왕자라고 하며, 도박장과 娼歌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或自稱曰王者, 博場娼肆遍踪跡언焉)”, 이규상, <장대장전>, 『一夢先生文集』3, 경인문화사, 1993. 42쪽.

14) <이춘풍전>의 주인공 이춘풍이 이러한 인물이다.

15) 「丐者李錫周傳」은 원작자가 陸用鼎이며,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8, 계명문화사, 1986. 330~333쪽에 실려 있다.

왈자들에게 의해 주도된 시정의 문화는 다분히 유흥적이고 소비적이었다. 집안을 꾸미기 위한 그림이 길거리에서 팔리고, 집이나 그릇, 가마·옷차림 등에서 사치가 유행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였으며, 음악, 바둑, 화훼, 서책, 고검의 수장 등이 시정인들의 취미로 등장했다.¹⁶⁾ 酒肆와 妓房이 번창하고 도박이 성행했다. 주막 깃발이 길거리 곳곳에 펴터이고, 색주가가 성업 중이었다.¹⁷⁾ 이러한 유흥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¹⁸⁾ 이러한 유흥문화는 대개 상업화 경향을 띠었는데 그것은 도시민의 유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시정의 유흥문화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妓樂이다. 물론 유랑예능인이나 연희집단, 장악원과 오군영 등의 국가 소속 음악기관에 의한 유흥적 음악도 있었지만¹⁹⁾ 시정 유흥의 주류는 아니었다. 조선후기 시정 유흥문화의 핵심은 기생과 가객·악사를 직접 초청하여 즐기는 기악이다. 기생이 가객 등의 전문 음악인들과 한 동아리의 그룹을 이루어 민간의 각종 연회나 유흥의 수용에 응하는 한편, 기방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기방은 靑樓, 挾斜, 勾欄, 妓館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술과 춤·음악·도박·매춘 등이 중요한 영업 종목이었다. 조선후기에 와서 기방이 발달함에 따라 기방에는 ‘기방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되었다. <이춘풍전>에서 보이는 기방문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

16) 박지원의 <金神仙傳>에 나오는, 술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체부동의 김봉사, 바둑을 잘 두는 누각골 김침지, 거문고를 잘 타는 이만호, 집에 고운 꽃을 가꾸는 里門安 조봉사, 진기한 서책과 고검을 갖고 있는 계동의 유판관 등의 인물이 이를 증명해준다.

17) “旗亭鱗錯彌街路，甲弟鸞翔樓峻牆。”，林光澤，「洛城漫吟」，『雙柏堂遺稿』：『여향문학총서』 6, 248쪽.

18) 강명관, 앞의 논문, 183쪽.

19) 장악원은 원래 종묘 제례, 임금의 거동, 왕실의 進宴, 고급관료들의 연회 등 국가 왕실의 음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와서는 민간의 음악 수요에도 응하였다. <이춘풍전>의 “장악원 풍류하기”가 이의 한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한량으로 대변되는 중간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던 시정의 유흥은 소비적이며 상업적이었다. 이러한 유흥 속에서 각종 사치문화가 발달했고, 기방이 유흥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이와 같은 유흥문화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을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유흥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탕자의 존재이다. <이춘풍전>은 중세해체기의 이와 같은 시정 유흥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Ⅲ. <이춘풍전>의 풍자양상

<이춘풍전>은 판소리적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대부분의 이본들이 구성방식에서 아니리와 창, 산문과 율문의 교체가 심하고,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서술자와 인물의 목소리 및 시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소리서사체와 특질을 같이 한다. 그리고 권주가, 각종 치례사설, 노정기 등 이른 바 삽입가요에 해당하는 율문이 30회 가까이 나타나며, 양반적인 유식한 표현과 민중적인 상스러운 문체가 지속적으로 대조되어 있고, 한문식 표현의 오기와 방언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하는 말이 · 거동 보소 · 불작시면’ 같은 판소리서사체의 특징적인 어구가 자주 보인다.²⁰⁾ 이러한 작품 내의 여러 특질로 보아 이 작품은 판소리 정착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점은 <계우사>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계우사>는 『관우회』의 <曰者打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착된 작품인데, 왈자들의 유흥세태나 패가망신하는 과정, 아내에게 구출되는 결말 등 여러 면에서 <이춘풍전>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이점에서 <이춘풍전>의 풍자성은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의 판소리적 성격과 무관할 수 없다.²¹⁾

20) 여운필, 「이춘풍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1013쪽 참조.

<이춘풍전>과 비슷한 내용은 야담이나 전에서도 볼 수 있다. 『청구야담』의 <獲生金父子同宮>과 『동야회집』의 <輪一石父子敍倫>은 평양 기생에게 혹해 수년 사이에 가진 돈을 다모두 탕진하고 기생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奇聞』의 <自願神將>은 스스로 비장으로 자처해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이다.²²⁾ 특히 육용정의 「丐者李錫周傳」은 북경을 왕래하여 거금을 모은 상인의 아들 이석주가 유흥에 빠져 거지로 전락한다는 내용으로 부모의 재산을 아들이 모두 탕진한다는 점, 유흥에 빠져 패가망신하고 거지로 전락한다는 점 등에서 <이춘풍전>과 매우 비슷하여 주목된다.²³⁾ <이춘풍전>의 풍자성에 대한 논의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판소리적 성격과 전·야담 등에 보이는 당대의 유흥문화와 관련지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춘풍전>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지닌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와의 갈등을 주로 다룬 이야기이다. 이를 춘풍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①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이춘풍이 아내에게 가사를 맡기면서 ‘야아버지직(국도본)’라고 서약한 굴욕적인 手記를 쓰다.

21)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춘풍전>에서 판소리적 성격이 작품 전체에 걸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춘풍의 아내 김씨가 평양에 당도하는 대목까지만 두드러지고 그 이후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종 타령과 치례사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춘풍이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하인이 되어 추월에게 구박받는다라는 것이 그의 아내에게 알려지는 대목까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이 춘풍의 평양에서의 방탕과 수난 대목까지만 <왈자타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 이후 아내 김씨의 활동 부분은 <왈자타령>이 독서물로 변개되는 과정에 추가된 결과일 것이다.

22) 권순궁, 「이춘풍전의 풍자성과 근대적 지향」,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126~127쪽 참조.

23) 「개자이석주전」에 대해서는 조혜란, 「좌절과 모색의 경계 : 개화 지식인 의전(宜田) 육용정(陸用鼎)의 인물전 연구」, 『탈경계 인문학』 4권 3호 제10집, 2011년 10월, 43~45쪽 참조.

- ② 아내가 治産하여 모은 돈과 빚낸 돈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서 기생에게 흘러 돈을 다 뜯긴 끝에 사환노릇까지 하는 수모를 당하다.
- ③ 남장비장이 된 아내가 그를 구출할 때 때까지 맞으며 굶신거리는 등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하다.
- ④ 집에 돌아와서 거짓과 뻔뻔함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아내에게 망신을 당하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춘풍은 점점 더 몰락하고 불리해지며 그의 아내는 반대편으로 상승하고 있다. 두 사람의 현실대응태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 같은 구조가 이 작품의 풍자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의 주체는 춘풍의 아내 김씨이다. 다른 작품에서처럼 모든 인물이 풍자에 동참하는게 아니고 춘풍의 아내만이 풍자의 주체로 등장하여 신랄한 풍자를 행하고 있다. 춘풍과 김씨는 전환기 사회의 현실에 전혀 다른 대응태도를 보인다. 춘풍은 소비(사치)와 향락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트리는 인물인데 반해 그의 아내 김씨는 근면·검소로 治産하고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하여 가정을 회복하는 인물이다. 춘풍이 당대를 대표하는 부정적 인물이라면 아내는 당대를 대표하는 긍정적 인물인 것이다. 풍자가 ‘도덕적 개선’을 염두에 둔 문학이라면 춘풍은 도덕적 개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내 김씨는 춘풍의 도덕적 개선을 주도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풍자는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이 행한 것,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다.²⁴⁾ 여기서 인간이 행한 것은 현실이며 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이상이다. 풍자

24) 이점에서 풍자는 매우 현실적이며 진실하다. 魯迅, 「풍자에 대하여」, 『魯迅文集』, 한무회 옮김(일월서각, 1987), 108쪽. 「풍자란 무엇인가」, 같은 책, 135~137쪽 참조.

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날카롭게 인식한다. 여기서 현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비판되어야 할 것이며, 이상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당위적인 것이다.²⁵⁾ 풍자에 있어 현실은 부정적이다. 풍자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나 어리석음, 사회의 온갖 부정과 비리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한다.²⁶⁾ 풍자에 있어서 ‘드러냄’과 비판은 도덕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은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다. 반면에 그의 아내 김씨는 지향해야 할 이상이다. 이 작품은 이 둘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춘풍은 비판되어야 할 존재이며, 아내는 춘풍에게 있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춘풍은 풍자의 대상이 되며 아내는 이춘풍에 대한 풍자의 주체가 된다. 이춘풍에 대한 신랄한 폭로나 비판은 여기에 근거하며, 그것은 모두 이춘풍의 개선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춘풍의 어떤 면이 풍자의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양친이 일시에 구몰하니 춘풍이 망극하여 삼상을 마친 후, 강근친척이 없어 춘풍을 경계할 이 없으며, 춘풍이 외입하여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외입장과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여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 두기, 장기 골패 쌍륙 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옛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주기, 어른 보면 술대접하고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있는 일년주며 병거짓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닐 적에 청루미색 달려들어 수천 금을 시각에 없이하니 천하부자 석송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티끌같이 없어지고 진토같이 다 마른다. 전에 놀던 청루 미색 나를 보면 헤어진다.²⁷⁾

작품의 시작 부분으로 춘풍의 유흥 행실이 잘 나타나 있다. 춘풍이 방탕하게 된 시점은 그 부모가 일시에 돌아가고 난 뒤부터이다. 외동아들

25) 김준오, 『한국 현대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268쪽.

26) 이점에서 풍자는 감춤의 문학이 아니라 ‘드러냄’의 문학이다.

27) 「이춘풍전」(장덕순본), 『한국고전소설선』(새글사, 1965)이다. 이후 <이춘풍전> 작품 인용은 모두 이 이본을 따른다.

인 춘풍은 주변에 그를 경계할만한 사람이 없어 그로부터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 두기, 장기 골패 쌍륙 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옛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주기, 어른 보면 술대접하고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좋은 일년주며 병거깃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 등은 당대 시정의 유흥 문화로 볼 수 있다. 춘풍은 이와 같은 당대 시정의 유흥문화에 빠져 짧은 시간에 가산을 모두 탕진한 것이다. 당대 유흥세대는 <이춘풍전>의 곳곳에 보인다.

미나리골 이패두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 신세 글러지고 동문 밖의 오청두는 투전잡기 즐기다가 말년에 결인 되고, 남산 골목 화전이도 소년의 부자로서 주색잡기 즐기다가 늙어서 그릇 죽고, 모시전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허랑하기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 금을 다 없애고 기름장사 다니네.

춘풍의 아내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춘풍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나리골 이패두, 동문 밖의 오청두, 남산 골목 화전이, 모시전 김부자는 모두 당대 시정의 한량들로 이 춘풍과 같은 부류들이며 당대 시정의 잘못된 유흥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춘풍은 이와 같은 시정의 그릇된 유흥문화가 낳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후기에 번성한 시장경제가 낳은 부정적 인물이며, 당대의 불건전한 유흥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이다. 그런데 이춘풍은 그릇된 유흥문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치패하여 일꾼전 일두속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비부지재라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마쇼.”

춘풍이 이 말을 듣고 대노하여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선전시킨

비단 감듯, 상전시전 연줄 감듯, 사월팔일 등대 감듯, 뱃사공의 닛줄 감듯, 휘휘칭칭 감아지고 이리치고 저리치며,

“천리 원정 장삿길에 요망한 계집년이 잔말을 이리 하니, 이런 변 또 있는가?”

제 아내 욱지르고 집안 재물 다 털어서 말에 싣고 떠날 적에.....

춘풍이 쓴 수기를 들먹이며 만류하는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다. 춘풍이 그릇된 유흥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조차 파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춘풍은 아내에게 장삿길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장사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거짓이고 실체는 유흥에 탐닉할 목적이다. “땡땡거리고 내달아서 호조 돈 이천 냇을 대돈변으로 얻어 내어 방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가러는” 춘풍에게 아내가 “이십 전에 부모조업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격단하고 앉았다가 물정도 소리한 데 평양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 반개하고 청가일곡으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라고 한 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춘풍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론 평양으로 장삿길 떠나려는 춘풍의 본 목적이 다른데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이춘풍은 시정의 그릇된 유흥문화에 폭 빠져 있음은 물론 그로인해 인간성조차 파괴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춘풍의 아내 김씨는 춘풍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생활 능력이 거의 없는 한량 이춘풍과는 대조되게 그의 처 김씨는 생활력이 매우 강하며 변동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다. 풍자가 주체의 도덕적 우위를 전제하는 점에서 보면 두 인물간의 선명한 대비는 이 작품의 풍자성을 가늠케 한다.

춘풍의 처 김씨가 춘풍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농사지어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이춘풍은 아내의 바람을 무시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 결국 아내가 이춘풍에 대해서 느끼는 불

만은 불건전한 유흥세대를 쫓는 춘풍의 그릇된 삶의 태도이다. 이춘풍은 잘못된 것임에도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며, 아내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 요구를 묵살한다. 그런데 이춘풍이 아내의 개선 요구를 묵살하면 할수록 춘풍은 점점 더 몰락해지고 비참해진다. 이런 춘풍에게 아내는 더 이상은 말로써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는 이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이 최고로 몰락했을 때는 평양기생 추월의 사환으로 있을 때이다. 이춘풍은 아내가 번 돈은 물론 호조에서 빌린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추월에게 간청하여 사환으로 있게 된다.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라 가련하다. 누더기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닐 저게 거동 불작시면 종로의 상거지라. 조석 먹는 거동 보면, 이빠진 현 사발에 누른밥에 토장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뜰아래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네.

사환으로 있으면서 춘풍이 한 일은 “오즘똥 쳐닉기와 죠석간의 불너주기와 담싸키와 공손의 누무비기”(김동옥본(1))처럼 굶은 것뿐이었다. 기고만장해서 아내를 폭행까지 하며 평양 장삿길을 떠난 춘풍의 처지는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냉소만을 자아내게 한다. 비장으로 내려온 아내는 추월의 집에서 사환을 하는 이춘풍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추잡하기 그지없는 거지행색의 이춘풍을 보고 슬프고 분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²⁸⁾ 춘풍을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만 하다. 김씨가 춘풍을 불러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게 하거나 이춘풍의 내력을 물어보는 장면에서 풍자는 절정에 달한다. 이 부분은 극적 아이

28) “물통 진 춘풍 저 늙 형용도 참혹하고 모양도 가련하다. 봉두난발 험수룩한 늙 낫조차 못 씻던가. 추잡하기 그지없다. 삼 년이나 아니 뻔 옷 주루룩이 누더여서 엮어 입고 앉은 것이 제 서방인 줄 알았으되, 춘풍이야 제 아내인 줄 어찌 알랴. 비장이 슬프고 분한 마음 서려 담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서.....”

러니에 해당한다. 다른 작중 인물·작자·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주인공이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의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극적아이러니다.²⁹⁾ <이춘풍전>의 경우 이런 극적아이러니가 풍자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춘풍에 대한 풍자는 평양에서 그치지 않고 춘풍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다시 이루어진다. 서울에 온 춘풍은 아내에게 뽐뽐함의 극치를 보인다.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호조돈이나 다집하고 약간 전량을 수취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춘풍이 아내가 비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서 역시 극적아이러니를 통한 풍자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온 춘풍이 아내가 비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내에게 뽐뽐스럽게도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평양에서 온갖 험한 일을 겪고도 아내에게 거짓으로 일관하며 뽐뽐함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남편을 보다 못한 춘풍의 아내 김씨는 다시 비장으로 변신하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평양에서 이상으로 춘풍을 매몰차게 내몰며 비참하게 만든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조

29) 극적아이러니는 표현된 말과 속에 숨은 뜻이 서로 상반되는 언어적 아이러니와 더불어 아이러니의 2대 유형이다. 이 밖에 아이러니는 낭만적 아이러니, 내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 등 여러 유형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 김준오, 앞의 책, 251쪽.

통이며 신랄한 풍자를 가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이춘풍전>에 있어서 풍자는 잘못된 유흥풍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인간성마저 파괴된 이춘풍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춘풍과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 당대 시정에 여럿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작품에서의 풍자는 이춘풍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춘풍으로 전형되는 당대 잘못된 유흥문화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9세기 전환기적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IV. 해학의 의미

해학은 풍자와 더불어 주관적 골계에 속한다. 주관적 골계는 객관적 골계와는 달리 대상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습지 않은 것을 우습게 하는 표현술, 곧 ‘형식’이 주관적 골계이게 하는 근본 조건이다. 해학과 풍자는 현실 부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중요한 점은 그 다음이다. 풍자는 비록 ‘개선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풍자와는 달리 해학은 부정을 통해서보다 높은 긍정의 세계를 지향한다.³⁰⁾

해학은 부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풍자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풍자가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해학은 ‘완화’한다. 해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동정적’이며 침착하기 때문이다. 해학은 애타적 성격인데 반해 풍자는 날카로운 공격성을 특징으로

30) 이런 점에서 해학은 풍자가 아닌 ‘비장미’와도 대조된다. 송고가 ‘골계’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오히려 더 한층 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 해학인 반면 ‘고뇌’에 의한 ‘송고’의 부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비장미이기 때문이다. 김준오, 앞의 책, 261쪽.

한다. 그래서 해학으로 인한 웃음은 우리에게 동정적 쾌감을 느끼게 하고 긴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지만 풍자로 인한 웃음은 비정한 쾌감을 준다.³¹⁾

<이춘풍전>의 결말은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관망탕건 벗어놓고 옷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하며 파경이 부합하여 원앙금침에 구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직전까지 춘풍의 아내 김씨는 비장으로 변신한 채 춘풍에게 갈분으로 죽 췌게 하고, 자기가 먹던 것을 춘풍이 받아먹게 하며 춘풍을 한없이 매몰차게 대했다. 그러던 아내가 변신에서 벗어나자마자 춘풍에게 달려들며 서로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는 설정은 조금 지나친 느낌이 없지 않다. 춘풍의 아내가 너무나 쉽게 춘풍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 온 풍자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이후 춘풍의 아내는 춘풍에게 저간의 사정을 말하면서 “만나 보니 차마 불쌍하여 더 치지 못하고 용서하였거던....”이라고 말하며 춘풍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 인물에 대한 연민의 마음은 해학의 특징이다. <이춘풍전>은 결말에서 풍자 대신 해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31) N. 하르트만 지음, 전원배 옮김, 『미학』, 을유문화사, 1995. 462쪽~463쪽.

내외가 서로 웃고 전후사를 서로 타이르며 호조돈을 다 수보하고 춘풍이 개과하여 주색잡기를 끊고 治家를 일삼아 형세도 요부하고 유자생녀하고 …… 이에 춘풍의 아내를 여중호걸이라 하더라.

<이춘풍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춘풍은 개과천선하고 치가를 일삼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해야하는 것’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춘풍은 처음 아내가 원하던 인간형이 된 것이다. ‘형세 요부하고 유자생녀’하다는 사실과 이춘풍의 아내가 ‘여중호걸’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이 작품이 부정을 넘어 긍정의 세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이춘풍의 아내가 이춘풍에게 보여주는 연민의 마음, 이춘풍이 아내가 원하던 인간형으로 변모했다는 사실, 화목한 가정을 되찾고 더 큰 긍정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춘풍의 아내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은 이 작품이 갖는 해학적 요소인 것이다.

<이춘풍전>은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풍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학은 결말 부분에서 짧게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분량의 차이가 실제로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학이다.

<이춘풍전>은 전환기적 시대의 잘못된 유흥문화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버린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그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인간성마저 파괴된 인물이다. 이 작품은 남편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아내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판소리적 성격이 강한 전반부는 잘못된 유흥문화에 빠져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이, 문장체 성격이 강한 후반부는 그런 남편을 바로잡으려는 아내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풍자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춘풍의 모습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춘풍의 아내 김씨의 모습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이 작품에서 풍자는 빛을 발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풍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부정과 비판, 그리고 공격이 목적인데 <이춘풍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의 풍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풍자가 ‘개선의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변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본질은 부정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그럼으로써 작품은 해학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풍자는 풍자만의 의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학을 위해 존재하며, 해학은 풍자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춘풍은 왈자이다. 왈자를 비롯한 중간계층들이 중세해체기의 시정 유흥문화를 주도했다. 이춘풍은 잘못된 유흥문화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인간성마저 파괴된 인물이다. 이춘풍의 아내 김씨는 남편인 이춘풍과는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을 설득하여 가정으로서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 이춘풍은 아내의 요구에 폭력으로 맞서며 끝내 그릇된 삶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풍자는 두 인물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발생한다. 풍자의 주체는 이춘풍의 아내 김씨이고 풍자의 대상은 그녀의 남편 이춘풍이다.

이 작품에서 풍자는 매우 신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춘풍의 도덕적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이 <이춘풍전>의 풍자가 부정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그치는 일반적인 풍자와는 다른 점이며, 이 작품의 해학성과 결부되는 요소이다.

<이춘풍전>에서 해학은 결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춘풍의

아내가 이춘풍에게 보여주는 연민의 마음,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인간형으로 변모한 이춘풍, 가정의 회복 등은 이 작품의 해학성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들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해학은 이 작품의 주제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춘풍의 도덕적 개선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작품에서 이춘풍의 타락을 부추긴 것은 당대의 잘못된 유흥문화이며, 그런 이춘풍을 바로 잡아 가정의 회복을 주도한 것은 이춘풍의 아내 김씨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풍자의 주체는 김씨이며, 풍자의 표면적 대상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춘풍이고 이면적 대상은 당대의 잘못된 유흥문화일 것이다.

이러한 풍자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해학의 한 부분으로서 해학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또다른 가치를 지닌다. 해학은 부정에서 출발하여 더 높은 긍정의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해학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개선이며 화해이다. 해학은 화해를 추구하기에 인물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애타적이다. 작품의 중간 중간, 그리고 결말에서 보이는 이춘풍의 아내 김씨의 이춘풍에 대한 태도는 이를 잘 보여 주었다.

<이춘풍전>에서 풍자는 풍자만의 의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학을 위해 존재하며, 해학은 풍자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춘풍전>에 대한 연구는 해학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판소리계 소설들은 대부분 풍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해학성도 보여준다. 그런데 풍자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에 해학성에 대한 연구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학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배비장전>·<웅고집전>·<토끼전> 등 다른 판소리계 소설들의 해학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 김군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8, 계명문화사, 1986.
-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 김준오, 『한국 현대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준오,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
- 서경희, 「이춘풍전의 남성과 여성」, 『이화어문논집』 17집, 이화어문학회, 1999.
- 안창수, 「이춘풍전 연구」, 『영남어문학』 10집, 영남어문학회, 1983.
- 여운필, 「이춘풍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1013쪽.
- 정병헌, 「이춘풍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조상우, 『고전산문의 발견과 활용』, 보고서, 2007.
- 조혜란, 「좌절과 모색의 경계 : 개화 지식인 의전(宜田) 육용정(陸用鼎)의 인물전 연구」, 『탈경계 인문학』 4권 3호 제10집, 2011년.
- 최숙인, 「이춘풍전 연구」, 『이화어문논집』 5집, 이화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Clarendon Press, 1982.
- A. Pollard, Satire, 송낙헌 옮김, 서울대 출판부, 1978.
- N. 하르트만 지음, 전원배 옮김, 『미학』, 을유문화사, 1995, 462~463쪽.
-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Abstract>

The issue of satire and humor in 〈Leechunpungjeon(이춘풍전)〉

Song, Chul-Ho*

This study shows the transition 〈Leechunpungjeon(이춘풍전)〉 humor noted. First,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19th century, medieval transitional nature and nightlife looked at his time of visibility. Based on this, the satirical aspects of this work since the first review and examine humor and humorous work with the inner meaning were identified.

〈Leechunpungjeon(이춘풍전)〉 the transitional period has to be added wrong nightlife which has squandered the family is the story of one man. To his right to grab the wrong attitude towards life as a battered wife, even the destruction of humanity, is a man. This work is the wrong way of life for my husband's right to hold the desired look of your home to find his wife's strong will to work is outstanding. Nature p'ansori a strong first half of nightlife located in the wrong husband, the appearance of living the wrong life, writing style personality husband just such a strong second half to grab a relatively prominent figure of his wife. This process was done in satire.

〈Leechunpungjeon(이춘풍전)〉 except for the ending part is made up of almost satire. Humor in the ending part that is only a short

* Pusan National University

appearing. Problem is that thes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is actually in the works is in proportion. Conclusion to say it is not. <Leechunpungjeon(이춘풍전)> greater than the proportion in the satire that is humorous. Chunpung humor of the show compassion to chunpung wife, chunpung transformed into the fact that my wife wanted Humanoid, harmonious family regain a greater positive the fact that the world is finished, the wife of chunpung through and understand the high ratings could.

In this work, satire to expose human folly and vice, and is not aimed to attack. In general, satire and criticism of the negative, and the purpose of the attack is <Leechunpungjeon(이춘풍전)> it was not a goal. In this work, the satire 'improvement' made for the purpose. Original satire 'intention of improving' it does not have to be, but it only stays around forever. The essence is to negative criticism and attacks.

<Leechunpungjeon(이춘풍전)> satire on the 'improve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and the work thus became humorous nature. Therefore, in this work that exists for humorous satire can be a humorous satire that can be completed through.

Key Words : <Leechunpungjeon(이춘풍전)>, p'ansori, municipal social conditions, transition, satire, humor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3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